

수협 유통 사료서 금지약물... 해경 수사 착수

수출·양식장 공급 사료 원료서 '엔로플록사신' 검출
전량 폐기처분 명령 내렸지만 모두 유통돼 회수 불가
A수협 "납품업체 문제... 자체 항생제 검사 진행할 것"

제주지역 모 수산업협동조합이 도내 광어 양식장에 공급하는 일부 사료 원료에서 사용 금지약물이 검출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도가 지난 2일 제주시내 A수협을 사료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A수협이 유통하는 일부 사료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약품 용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해경은 조만간 A수협에서 시료를 따로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광어 양식장에 공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른 동물약품은 잔류 허용 기준이 있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면 유통이 가능하지만 엔로플록사신은 단 1mg이라도 검출되면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도는 A수협에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사료를 전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문제의 사료들은 이미 유통돼 회수할 수 없는 상태다. A수협 관계자는 "(폐기 처분 명령을 받은)어분사료는 이미 대부분 해외로 수출됐다"며 "도내 광어 양식장 10여 곳에 공급된 (항생제가 검출된) 단미사료를 가공해 만든 배합사료도 이미 다 써버려 회수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배합사료를 먹은 광어들이 출하 전 받은 안전 검사에서 문제를 보인 적은 없었다"며 "수출용 어분 사료 문제도 폐사 광어를 납품한 양식장 측이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를 주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수협이 사료 원료를 납품 받는 과정에서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A수협 관계자는 "그동안은 단백질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등 성분 비율 위주로 검사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자체적으로 항생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납품 업체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했다. 한편 제주산 광어는 제주 주력 수출 상품으로, 지난해 전체 생산량 중 7.6%인 1760t이 해외로 수출됐으며 수입국 검역 과정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8일 국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일본 현지와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국제토론회 "희석하면 안전하다?... 잘못된 주장"

일본·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 "방사선 영향평가 결합 많아"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제주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토론회가 열렸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과 더불어 어민주당 제주도당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야6당 공동대응기구는 8일 제주도의회 소공동마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현황과 문제'라는 주제로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반 히데유키 대표의 발제와 그린피스 손바니 수석 원자력 전문가의 발제가 있었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오염수를 희석하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방사선 영향평가는 결합 덩어리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바니 그린피스 전문가는 "그린피스는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평가에서 많은 결함을 발견했다"며 "도쿄전력은 축적 효과, 먹이사슬을 통한 영향 등 삼중수소와 기타 방사능 핵종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삼중수소가 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을 좌장으로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발제, 기후위기 제주행동 김경도 실행위원장,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민생현안대응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핵오염수 방류 문제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국민적인 여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50대 공영버스 기사 제주시청앞서 분신 시도

제주시청 앞에서 50대 남성 공영버스 기사가 몸에 스스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8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8분쯤 제주시청 6별관 앞에서 A씨의 몸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의 몸에 붙었던 불은 꺼진 상태였으며 A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이 과정에서 제주시청 공무원 B씨가 손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공영버스 기사로, 근무 여건과 직원 간 내부 갈등 문제로 제주시 관계자와 면담을 한 뒤 건물 밖으로 나와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길 건너던 80대 할머니 레미콘차량에 치여 숨저

길을 건너던 노인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교차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80대로 추정되는 보행자 A할머니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할머니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상민기자



성미 급한 관광객들 8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민기자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징입

2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약 2년간 제하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101회에 걸쳐 22억38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양계장 전기 화재로 육계 1만여마리 폐사

도내 한 양계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닭 1만1000여마리가 폐사하며 1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8일 제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59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인근 주민이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원 41명을 투입해 오후 1시38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양계장 2동이 전소되고 육

계 1만1000여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1억1853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 결과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전기적 특이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경찰과 국과수 등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유라조생 1~3년생
하례조생 1~4년생
궁천 1~4년생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신제품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한라봉 2,3년생
·유라실생	·황금향 2년생
·궁천 3,5년생	·하례조생 4년생
·레드향 2,3,5년생	·레몬 4년생
·천혜향 2년생	·탱자묘목 2년생
·하갈 4,5년생	·그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3-20-08

☎010-2699-2355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제품]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력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제품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관부리 왕실과 뿌리손상 방지 미수익기간 단축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적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곳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부리 왕성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갈 / 금갈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제품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제품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농장은 은 중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2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1년생
● 미니향 3년생 ● 레몬 4년생
● 제라몬 3년생 ● 미니몬 1년생
● 하갈(아마나스)1~2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 1~4년생 ● 유라조생 1~2년생
● 하례조생 2년생 ● 오히라베니와세 1~2년생
● 히노야까리 4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하갈, 천혜향, 오히라베니, 제라몬, 미니몬, 황금향, 한라봉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325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